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의 사회 전문인 되어가기 : 질적 내용분석

임소희¹, 김현아^{2*}

¹경민대학교 간호학과, ²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Becoming a Social Professional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ommunity Service: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o-Hee Lim¹, Hyeon-Ah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m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체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의 본질을 찾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안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Graneheim & Lundman이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한 연구결과로 '경험 속에서 누리는 함께함', '나눔을 통한 성장', '전문인으로 향하는 성숙을 이루어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함'이라는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성장과 성숙을 통한 사회 전문인 되어가기'라는 핵심주제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학생의 봉사활동이 인성교육의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experiences for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essence of college students' community service experiences and provide them with basic data to develop effective personality education methods and service program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six college students with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May to September 2019 and were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Graneheim & Lundman. The community service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could be summarized by the core theme, "Becoming a social professional through growth and maturity", consisting of the following themes: together in a living experience, growth through sharing, achieving maturity toward professionalism, and experiencing one's limitation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service activities would cultivate the human character and competency necessary to live with others, the community, and nature. The college student's service activities could be used as an important educational program in personality education.

Keywords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mmunity Service, Personality Education, College Student, Educational Program

본 논문은 한림성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eon-Ah Kim(Hallym Polytechnic Univ.)

email: light7492@hsc.ac.kr

Received September 1, 2020

Revised October 20,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가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사회적 진출을 돕고, 사회에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1].

인성은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하게 되며 인간의 성격, 성향, 인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자신 스스로를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뜻한다. 인성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하며, 핵심역량이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식, 공감과 소통,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를 위해 인간적인 성품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봉사 활동은 중요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다.[4]. 특히, 봉사 활동의 동기는 인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4]. 봉사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으로[5],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자긍심의 향상과 애교심 증진, 정체성의 확립 등을 가져와 봉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형성하고, 사회적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6].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내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여 행동으로 옮겨 실천 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 문제해결 과정을 체험해 보게 되면서 봉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를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협동심, 의사결정력 등을 습득하게 되고, 이는 곧 긍정적인 자기 이해를 형성하여 사회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헌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게 된다[7].

봉사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을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봉사활동이 웰빙을 가능하게 하여 안녕감과 행복감을 갖게 하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산적인 노화까지도 가능하게 함을 보고하고 있다[8-11].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역량있는 사회인이 되어감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세상을 향한 시야와 대인관계의 확장, 자신감을 갖게 함을 보고하고 있으며, 봉사를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시 학생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13-19]. 또한, 공공봉사 영역의 동기에서도 외적보상을 활용할 수 있으며[20], 봉사활동 시 직무관련 교육과, 배치, 환경 개선을 통해 봉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1]. 이와 함께 봉사 활동이 인성교육에도 좋은 방안이 됨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17],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경우 청소년 대상 연구[1,4]가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인간의 심층 세계를 확인하고 기술하는 질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질적 내용분석은 탐구하려는 현상을 기술하고 이해하여 지식을 생성하는 데 매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22]. 또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방법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언어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의미의 이해와 깊이를 더하고, 대학생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인성을 지닌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의 본질을 찾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안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보다 진보된 후기 연구의 기반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무엇인가?
-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효과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Graneheim & Lundman(2004)[23]이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의 체험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질적 내용분석은 연구 질문을 축으로 하여 자료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귀납적 분석방법이다[23,24].

본 연구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은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체험을 생생하게 파악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 배출에 도움이 되는 매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생각된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H대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대상은 28세의 3학년 남학생 2명, 23~24세의 4학년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and Service Activity

Participants	Gender	Age	Grade	Service Activity
1	M	28	3	Free meal assistance for the elderly
2	M	28	3	Care assistance in nursing home, Free meal assistance for the elderly
3	F	23	4	Delivery of lunch box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 academic assistance
4	F	24	4	Care assistance in nursing home
5	F	23	4	Elderly health check
6	F	24	4	Elderly health check

2.3 연구자준비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단계에

서 연구의 도구가 됨으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많은 경험과 고도의 숙련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과 연구물들이 있으며 전문 학술학회에 참석하여 학문적 역량과 지식을 축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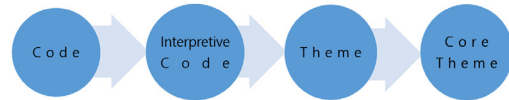


Fig. 1. Procedure fo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2.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시 참여자 스스로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 시 사용한 질문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은 어떠했나요?”로 시작하여 추가 질문을 통해 주제에 맞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에 연구자의 판단이나 견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참여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구실, 휴게실 등에서 시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주 1회, 매 회 약 1시간 내외였으며, 평균 면담 횟수는 약 2~3회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 그대로를 전사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중 중요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재 질문하여 진실성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 면담 및 연구 분석은 모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Guba & Lincoln (1989)[25]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독립성에 근거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Graneheim & Lundman(2004)[23,26]의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4단계를 통해 핵심 주제를 생성하였다.

첫째, 의미 있는 진술문 확인단계로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원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맥락 속에서 자료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둘째, 코드화 단계로 의미 있는 진술문의 중심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나 구를 코드화하고, 추상화를 통해 해석적 코드를 생성하였다.

셋째, 주제 생성 단계로 해석적 코드를 범주화 하여 주제를 생성하였다.

넷째, 핵심 주제 명명 단계로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합하

고, 코드, 해석적 코드,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전사된 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하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잘 함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진가를 입증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공동 연구자가 연구의 모든 분석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참여자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2.5 연구 수행에 따른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심층 면담의 진입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생활 보호, 익명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동의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녹음 된 면담 자료와 전사 자료는 연구 종료 후 바로 폐기 처리할 것이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6 연구의 진가 입증을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질적 연구에서의 평가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준거로 삼는다[25].

첫째, 사실적 가치 확보를 위해 연구의 모든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게 기술되도록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연구자의 선입견을 차단하고 중

립적인 태도로 경청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면담 시 재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1명의 연구자의 자료 분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공동 연구자가 참여하여 분석한 후 도출된 주제를 상호 검토하며 연구자 간에 의도적으로 서로의 분석 결과를 반박하는 시도를 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적용성 확보를 위하여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참여자를 추가하여 면담을 시행하고, 현상에 대한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위해 독자들이 연구자의 의사결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관련된 모든 과정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도출된 주제와 실제 자료들 간의 관련성이 확보되도록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주제 속에 적절히 삽입하여 기술하였다.

넷째, 중립성 유지를 위해 연구결과의 편견이 없도록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을 확립함으로써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

Table 2. The Resul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de	Interpretive code	Theme	Core theme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uilding acquaintance with friends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Living together	Pleasure together	Together in a living experience	Growth and maturity as a social professional
Living learning activities A vivid experience Opportunity for indirect experience Consideration for others	New learning place		
Helping Becoming a useful person Occurr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through sharing	Growth through sharing	
Applying one's major knowledge Feeling proud Self-esteem	Pride through the practice of talent	Achieving maturity toward professionalism	
Improved interpersonal skills Heart connected Break the awkwardness	Opening the door of mind		
Lack of expertise Feeling the limits of communication Relationship difficulties	Lack of proficiency	Experiencing one's limitations	

참여 경험의 핵심 주제는 성장과 성숙을 통한 사회전문인 되어가기였으며, 4개의 주제를 통해 도출되었다. 4개의 주제는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누리는 함께함, 나눔을 통한 성장, 전문인으로 향하는 성숙을 이루어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함 이었다[Table 2].

3.1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누리는 함께함

주제1에서 참여자들은 봉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평소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의 장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주제 내에는 “함께하는 즐거움”, “새로운 배움의 장” 소주제가 포함되었다.

3.1.1 함께하는 즐거움

참가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친구들과 누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평소 친분이 없었던 친구들과도 봉사활동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할 수 있었던 거요. 친구들이랑...”(참가자 1)

“같이 하는 친구들, 동기들이랑도 같이 으싸 으싸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었던 거 같고...”(참가자4)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예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맞춰가면서 친해져서 되게 좋았고요...”(참가자 2)

3.1.2 새로운 배움의 장

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지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봉사활동 이라는 살아있는 체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적 지식과 생생한 배움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나” 중심인 작은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확실히... 학교생활이나 대학생활 하는 게 공부하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 하면은 그런 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거나 느끼거나 하는 거 같아요.”(참가자 5)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참가자 3)

3.2 나눔을 통한 성장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타인에 대한 나눔과 베품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주제의 소주제는 “나눔을 통한 만족감” 이었다.

3.2.1 나눔을 통한 만족감

참가자들은 자신이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며 자존감 향상에도 기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참가자 4)

“거기서 내가 활동을 하니깐 나도 되게 쓸모 있는 사람 이구나 하는...”(참가자 5)

3.3 전문인으로 향하는 성숙을 이루어감

주제 3에서는 참가자들이 봉사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낮은 대상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는 보람을 경험하였다. 본 주제의 소주제는 “재능의 실천을 통한 자긍심”, “마음의 문을 엮”이었다.

3.3.1 재능의 실천을 통한 자긍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웠던 새로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보람이 되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학교에서 교육받은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갖게 된 차별화된 재능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뿌듯함을 경험하였다.

“혈압 같은 거, 혈당 이런 거 재드리면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집안 구조물 같은 것들 다듬어 드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보람이 된다는 게 자랑스럽고...”(참가자 2)

“저희도 배울 수 있고, 또 알려줄 수 있다는 거에 뿌듯했어요.”(참가자 6)

“나도 이 정도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자부심이랄까요...”(참가자 3)

3.3.2 마음의 문을 열

봉사활동 대상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참가자들은 처음 관계를 맺으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점차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린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가 처음에는 낯을 가리시고 잘 말도 안 하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말 거니까 친근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근황도 묻고, 가족관계도 묻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괜찮다고 하다가 뭐 부탁하시기도 하고... 할머니 마음을 열어드렸다는 거에서 보람을 느꼈어요.”(참가자 2)

3.4 자신의 한계를 경험함

주제 4에서 참가자들은 봉사하는 동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고, 의사소통 시에도 보다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본 주제의 소주제는 “부족한 숙련됨”이었다.

3.4.1 부족한 숙련됨

참가자들은 대상자와의 대화 시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고, 봉사활동 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함께 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도 하였고, 다행히 교수자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Fig. 2.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n Community Service

“저는 그 어르신들이랑 대화할 때 그 어색한 침묵... 그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전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몰라가지고...”(참가자 6)
 “제가 하면서 잘 모르는데 알려줘야 하나까 좀 힘들었는데... 옆에 동기나 교수님 도움 받아가지고 해서 괜찮았어요.”(참가자 4)

4. 논의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함께 봉사에 참여한 친구들과 더 탄탄한 관계를 맺게 해주었고, 전혀 친분이 없던 사람들과도 새로운 친분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봉사라는 공통된 경험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서로 맞춰가며 조율하는 가운데 협력과 소통의 결실도 맺게 되었다.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과 대화가 필요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봉사 활동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됨을 알게 되었다. 혼자가 아닌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으며 협력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능력이 향상됨을 체득할 수 있었다[13]. Lima(2020)[10]의 봉사활동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의하면 봉사 활동은 웰빙, 즉 안녕감과 행복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봉사 활동의 실천은 한 명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웰빙까지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의 5개 아시아 국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봉사활동이 웰빙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적 노화로 이끄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참가자들은 봉사활동이라는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간접 체험을 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의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봉사 활동의 참여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6]. 즉, 봉사활동의 경험은 새로운 지식의 경험과 함께 대인관계를 확장시킴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성장까지도 도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7].

참가자들에게 봉사활동의 참여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었다. 나눔과 베품을 경험하면서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며 만족감

을 경험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자들의 사전기대와 지각된 성과가 봉사활동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봉사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긍정적 경험 형성이 만족감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9].

봉사 활동을 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보탬이 된다는 것에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대학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공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였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해외 봉사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공 지식과 기술을 통한 봉사가 보람이 있고, 이론과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됨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6]. 정신질환이나 인지장애를 지닌 대상자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선행 연구에서도 봉사활동 경험이 참가자들에게 스스로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감정과 자부심을 갖게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사회 내부와의 유용한 연결 고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

처음 만남 시에는 봉사활동 대상자들과 낯설음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점차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봉사 활동 동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 해결하기 어려운 답답한 상황에 처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으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협력과 단합된 하나의 힘을 이루는 성숙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였다. 대학생의 지역사회 봉사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7].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새로운 지식과 배움의 기회를 획득하여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눔을 통한 만족감과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긍심의 형성,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한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자기존중감, 정서안정감, 대인관계력, 문제직면력, 대인신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서도 80.8%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봉사활동이 인성 교육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17].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하게 되어 전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일조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봉사활동이 인성교육의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의 본질을 찾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안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누리는 함께함, 나눔을 통한 성장, 전문인으로 향하는 성숙을 이루어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함이라는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성장과 성숙을 통한 사회전문인 되어가기라는 핵심주제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봉사활동 경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H대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의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할 것과, 대규모 대상자들의 양적 연구도 제한하는 바이다.

Reference

- [1] E. J. Kim, "A study on youth volunteer activities learning and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Vol.65, pp.57-85, December 2018.
- [2] M. Y. Lee, "The effects of a monitoring education program to reinforce college students' mentor capabilities on mentor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happiness", *Korean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18, No.1, pp.13-23, February 2020.
- [3]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2020 [cited 2020 July 1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accessed July 10, 2020)
- [4] N. Y. Kim.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motivation for volunteer activities on youth's character mediating effect of volunteer satisfac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42, pp.123-138, June 2018.
- [5] Naver Dictionary, Service, c2020 [cited 2020 July 10]. Available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d8508e3408244ff953af223079a87e5> (accessed July 10, 2020)
- [6] H. R. Lee, E. J. Kim, M. W. Baek, M. H. Cho, C. G. Park, "A phenomenological study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overseas volunte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es, and Sociology*, Vol.8, No.6, pp.203-222, June 2018.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6.12>
- [7] M. S. Jeong, S. Y. Jung, "A study of qualitative case about community service learning for developing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3, No.1, pp.199-225, February 2019.
- [8] K. Marchesano, M. Musella, "Does volunteer work affect life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with chronic functional limitatio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Vol.69, pp.1-13, April 2020.
DOI: <https://doi.org/10.1016/j.seps.2019.04.005>
- [9] L. H. Huang, "Well-being and volunteering: evidence from aging societies in Asi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229, pp.172-180, May 2019.
DOI: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8.09.004>
- [10] P. A. B. Lima, E. B. Mariano, "Volunteer work and happines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Latin American Journal of Man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ol.5, No.1, pp.17-36, March 2020.
DOI: <https://doi.org/10.1504/LAJMSD.2020.105794>
- [11] K. Kruithof, J. Suurmond, D. Kal, J. Harting, "Volunteer work with vulnerable persons in the community: A qualitative study of social inclusion", *Journal of Social Work*, online, pp.1-17, April 2020.
DOI: <https://doi.org/10.1177/1468017320919874>
- [12] C. L. Shandra, "Disability segregation in volunteer work",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63, No.1, pp.112-134, June 2019.
DOI: <https://doi.org/10.1177/07311121419842133>
- [13] J. A. Hwang, "Exploring the meaning of self-directed service experienced by preservice teachers-focused on the service of daycare programs for lower grades of elementar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1, pp.443-452, November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1.443>
- [14] B. S. Jang, "A meta-analysis for effects of service-learning",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4, No.2, pp.49-69, April 2018.
DOI: <https://doi.org/10.14333/KJTE.2018.34.2.49>
- [15] S. Y. Lee, H. J. Lee, G. S. Kwon. "A quasi-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on youth volunteers capacities : A comparison between WFK IT volunteers and controlled university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30, No.1, pp.39-65, November 2019.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9.30.1.39>
- [16] J. Y. Han, H. A. Seo, J. H. Cha, J. E. Hong, "Study on the system of overseas educational voluntary activity: focused on Nicaragua",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58, No.1, pp.65-80, March 2019.
DOI: <http://dx.doi.org/10.15812/ter.58.1.201903.65>
- [17] G. S. Kim, K. S. Hong, "The effects of middle aged women's volunteer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21*, Vol.21, No.2, pp.987-1001, April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2.71>
- [18] M. S. Kim, S. Y. Yun, "Convergence influence factors on nursing students' willingness to volunte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5, pp.377-384, May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5.377>
- [19] B. R. Kim, H. H.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approval ratings of volunteers in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 paralympic games: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s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8, No.2, pp.49-64, March 2019.
DOI: <http://dx.doi.org/10.23949/kipe.2019.03.58.2.49>
- [20] T. H. Kim, "Effects of reward preference and satisfaction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8, No.1, pp.177-211, December 2019.
- [21] D. H. Kim, B. Ch. Kim, "The effects of job education, job assignment, and job environment on satisfaction, volunteer activity re-participa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s: A focus on moderating roles of sport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Sport Studies*, Vol.58, No.2, pp.231-245, March 2019.
DOI: <http://dx.doi.org/10.23949/kipe.2019.03.58.2.231>

- [22] S. Cavanagh, "Content analysis: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Nurse Researcher*, Vol.4, No.3, pp.5-13, May 1997.
DOI: <http://dx.doi.org/10.7748/nr1997.04.4.3.5.c5869>
- [23] U. H. Graneheim, B. Lundma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Vol.24, No.2, pp.105-112. February 2004.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3.10.001>
- [24] H. F. Hsieh, S. 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5, No.9, pp.1277-1288. November 2005.
DOI: <http://dx.doi.org/10.1177/1049732305276687>
- [25] E. G. Guba, Y. S. Lincoln, "Fo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pp.7-270, 1989.
- [26] M. R. Won, Y. J. Choi,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mentors' experiences of peer monitoring in Korea: A qualitative 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Vol.51, pp.8-14, April 2017.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6.12.023>

임 소 희(So-Hee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적응

김 현 아(Hyeon-Ah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노인간호, 한방간호, 질적연구, 시뮬레이션, 간호교육